

아동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강연진 · 이정화[†]
(성북초등학교 · [†]부경대학교)

The Effects of Children's Resilience, Mothers' Parenting Style, and Family Strength on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Yeon-Jin KANG · Jeong-Hwa LEE[†]
(Seongbuk Elementary School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 folded. The first was to examin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self-resilience, their mother's parenting style, family strength and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the second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ve effects of the three variables on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o achieve the purposes, a total of 198 5th and 6th grade children and their mothers were surveyed on children's resilience scale, parenting style scale, family strength scale, and school adjustment scale. As a results, positive relationships among the four variables were observed. Also it was founded that children's self-resilience is the most effective, mothers' parenting style is the second, and family strength is the least factor on school adjustment. From the results the researchers suggested that early intervention is needed to enhance family strength as well as intervention to improve self-resilience in order to increase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ey words : Children, Resilience, Mothers' parenting style, Family strength, School adjustment

I. 서론

학교는 아동발달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특히 과거에 가정이 담당하였던 사회화의 기능이 축소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화의 장으로서의 학교 역할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Kim Tae-Lyon et al., 2004). 그러므로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고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하는 초등학교에 대한 적응은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학교에 적응을 잘 하는 아동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고 대인관계, 학업 성적, 행동특성이 향상되어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예측(Chae Ho-Sook, 2008; Lee Hyun-Min, 2005)할 수 있는 반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정서적인 문제와 소극적, 공격적 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보인다(Heck, 1983; Park Jae-San & Moon Jae-Woo, 2006). 그러므로 아동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497, jlee@pknu.ac.kr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밝히는 연구는 의미가 있다.

오늘날의 아동은 높은 학업성취 요구, 가족기능의 약화, 경쟁적 사회관계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환경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문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아동은 쉽게 잘 적응하는 반면에 어떤 아동은 어려움을 겪는다. Choi Ok-Hee(2006)는 생태학적 변인군 중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는 아동 개인의 특성과 가정환경 변인 등이 포함된 미시체계 변인군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군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므로 학교적응에 대한 차이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측면과 관련이 있는 아동개인 및 가정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개인특성변인 중 자아탄력성을, 가정특성 중 모의 양육태도와 가족건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태도를 살펴봄에 있어서 모의 양육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지원체계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Yates, Egeland와 Sroufe(2003)의 미네소타 부모-자녀 프로젝트(The Minnesota Parent-Child Project)에 의하면, 일관되고 지지적인 양육에 의한 인생 초기의 긍정적 적응은 아동의 적응에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되었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적 수반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개인조절능력이다(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가족이나 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자기 효능감과 인지적 효율성이 높을 뿐 아니라, 문제가 생길 경우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도 있어 도전적인 과제에 대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Block &

Kremen, 1996; Rutter, 1978; Shin Jeong-Hee, 2006). 그러므로 자아탄력성은 부적응을 방지하고 문제에 대한 대처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삶에 보다 긍정적으로 참여케 한다는 점에서 적응능력과 상관관이 높다고 할 수 있다(Kim Kyung-Eun & Chio Eun-Hee, 2010).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자기 존중감 및 지적인 성취도가 높고, 학업, 친구관계, 교사관계 등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보여 전반적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경향이 있다(Garmezy, 1983; Kang Chang-Sil, 2008; Klohnen, 1996; Shin Yun-Ja, 2005; Werner & Smith, 1982). 자아탄력성이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러한 긍정적인 특성과의 관련성 때문만은 아니다. Masten(2001)과 Wicks(2005)은 자아탄력성을 유전적 특성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이나 특정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며, 학습과 향상이 가능한 보편적인 적응기제라고 하였다(Lee Sun-Young, 2008, 재인용). 그러므로 자아탄력성은 학습이 가능한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교육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변인으로서 더욱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더불어 가정 또한 학교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가정은 아동의 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일차적인 환경이다. Jung Won-Sik(1994)은 가정환경을 지위환경, 구조환경, 과정환경으로 분류한 바 있다. 지위환경에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구성, 부모의 교육수준 등이 포함되며, 구조환경에는 문화적 상태, 생활공간, 가치지향성, 강화체계, 집단특성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과정환경은 가정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분위기나 풍토 등을 말하며, 이를 심리적인 환경으로 개념화 하였다.

아동이 가정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으로 이어진다고 볼 때, 아동이 지각하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가족상호간의 관계와 작용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가정의 심리적 환경으로 양육태도와 가족건강성을 들 수 있다.

먼저, 양육태도의 개념을 보면 부모는 일생을 통하여 시기적 특성에 따라 보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며 양육을 책임지게 되는데 이때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의 경향성을 양육태도라고 한다. 양육태도와 학교적응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보통 어떤 양육태도가 학교적응과 상관이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양육태도가 민주적, 애정적, 합리적, 자율적일수록 학교적응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Byun Jee-Sun, 2005; Jung En-Jin, 2002; Ko Hye-Jin, 2003).

양육태도는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로 나눌 수 있다. Medinnus(1965)와 Lee Sook(1988)은 아동이 주변의 환경을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보고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자녀에게 훨씬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았다. Kim Sung-Yeoun(1981)은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를 비교하여 아동의 정의적 영역(자아개념)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가 상관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잘 대해주어도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자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자녀의 정의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느냐 또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실제 양육태도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학교생활 적응을 이해하고자 수행된 많은 연구들은 학교적응에 있어 가족특성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와 부적응문제는 가족 내의 문

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가족의 심리적 관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Cho Gye-Yeun, 2006; Choi Ji-Eun & Shin Yong-Joo, 2003; Kwon Ji-Eun & Lee So-Hee, 1999), 가족건강성이 주요한 변인으로 고려되고 있다(Kim Hyeong-Soo & Cho Woo-Hong, 2009; Lee Hye-Kyong, 2009).

가족건강성에 관한 개념은 1970년대 미국에서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가족기능의 약화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Olson, 1996; Olson & DeFrain, 2003; Stinnett & DeFrain, 1985)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국내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가족의 기능화 정도를 사정하기 위한 가족건강성척도가 개발되었고(Choi Seon-Hee, 1999; Eo Eun-Joo & Yoo Young-Ju, 1995; Yoo Young-Ju, 2004), 척도의 하위요인들을 통해 가족건강성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Choi Seon-Hee(1999)는 문헌 연구를 통해 가족건강성 영역으로 의사소통, 애정/사랑, 신뢰/지지, 문제해결능력, 부모역할, 자율성, 유연성, 신념체계 등 8가지 영역으로 정리한 바 있다. Yoo Young-Ju(2004)는 가족건강성척도의 하위요인으로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목표공유, 역할충실,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과 협력, 신체적 건강, 가족·사회와의 유대 등 10개 요소를 포함하였다. 그러므로 가족건강성이란 가족원 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올바르게 적합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Jung Ji-Young & Lim Jung-Ha, 2001).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최근의 연구(Kim Kyung-Eun & Choi Eun-Hee, 2010; Kim Mi-Sun, 2011; Kim Yeon-Jeong, 2010; Nam Young-Ja, 2009; Park Sang-Hee, 2010; Park Hyun-Jin, 2011; Yang Kem-Sil, 2010)를 보면, 높은 수준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Kim Mi-Sun(2011)과 Yang Kem-Sil(2010)은 가족 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기에도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한 바 있다.

이상으로 아동의 학교적응과 주요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각 변인들과의 관계를 부분적으로만 살펴보았을 뿐 세 변인을 모두 고려하여 영향력을 알아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참고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즉 개인 변인으로 자아탄력성과 가정변인으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아동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 공립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5-6년 아동 198명과 그들의 어머니 198명이었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을 한 정한 이유는 사춘기에 접어들고 상급학교 진학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의미있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이

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Table 1> Frequency of Distribution of the grade, gender, age, education, and family income of the subjects

variable	category	frequency(%)	
child	grade	5th	90(45.5%)
		6th	108(54.5%)
	gender	male	101(51.0%)
		female	97(49.0%)
age	30s	52(26.3%)	
	40s	138(69.7%)	
	over 50	8(4.0%)	
mother	education	middle school	6(3.1%)
		high school	101(51.0%)
	family income	4 year degree	86(43.4%)
		master degree or higher	5(2.5%)
family income	below 1 million Won	12(6.1%)	
	over1 ~below2	38(19.2%)	
	over2 ~below3	47(23.7%)	
	over3 ~below4	42(21.2%)	
	over4 ~below5	34(17.2%)	
	over 5 million	25(12.6%)	
	sum	198(100%)	

2. 연구도구

가.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Min Byeong-Soo(1991)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 학교행사의 5개 하위요인(각 요인당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에서 신뢰도가 낮은 학교행사(Cronbach's $\alpha=.51$)를 제외한 4개요인(총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는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교사관계적응 .87, 교우관계적응 .73, 학습활동적응 .81, 학교규칙적응 .80, 학교생활적응 전체는 .91로 나타났다.

나.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의 자아탄력성 측정도구는 Block과 Kermen (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y scale)를 Yoo Sung-Kyung, Hong Se-Hee, & Choi Bo-Yoon(2004)이 번안 및 수정한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나는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새롭고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와 같이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 자신감, 자기수용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chaefer 등(1965)이 개발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CRPBI)를 기초로 Baek Hyun-Jeong (1991)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Schaefer의 양육태도 모형에 나타난 양육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양육태도의 2개 유형과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의 2개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질문지의 문항은 민주·자율 대 권위·통제와 애정·수용 대 적대·거부의 각 11문항씩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및 점수 부여방식은 아동이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항상 그렇게 한다(4점)’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자율적이고 애정·수용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해 권위·통제적이고 적대·거부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보면, 민주·자율 대 권위·통제는 .64, 애정·수용 대 적대·거부는 .8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전체는 .81로 나타났다. 민주·자율 대 권위·통제의 신뢰도가 약간 낮은 편이었으나 일반적으로 설문 문항의 내적일치도가 .6이상이면 무난하다고 보는 바 그대로 사용하였다.

라.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Eo Eun-Joo와 Yoo Young-Ju(1995)가 제작한 ‘가족 건강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원간의 유대(10문항), 가족원간의 의사소통(9문항), 가족의 문제해결수행능력(6문항), 그리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9문항)의 4가지 요인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20점~170점까지 점수 분포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가족원간의 유대 .93,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91, 가족의 문제해결수행능력 .70,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91, 가족건강성 전체는 .9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먼저, 연구도구의 적절성과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대상이 아닌 초등학교 5학년생 25명과 6학년생 24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생활적응 척도에서 하위요인인 학교행사는 신뢰도가 낮아 제거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해당 학교 담임선생님께 충분히 설명한 후, 아동들에게는 담임선생님이 직접 배포하여 학교에서 응답하게 하고 회수하였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형태로 배포하여 회

수하였다.

총 배부된 설문지는 아동 230부, 어머니 230부 였으나 모와 자녀가 매칭 되지 않거나, 응답 내용이 부실한 자료 등 자료처리에 부적절한 22부를 제외하고 아동 198부, 어머니 19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아동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아동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에 의하면 첫째,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61, p<.01$),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습활동적응, 학교규칙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0, p<.01$ / $r=.68, p<.01$ / $r=.51, p<.01$ / $r=.40, p<.01$).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52, p<.01$),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습활동적응, 학교규칙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37, p<.01$ / $r=.41, p<.01$ / $r=.45, p<.01$ / $r=.46, p<.01$).

셋째, 가족건강성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29, p<.01$),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습활동적응, 학교규칙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20, p<.01$ / $r=.19, p<.01$ / $r=.28, p<.01$ / $r=.25, p<.01$).

<Table 2> Correlations among children's resilience,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family strength (N=198)

factor	school adjustment	teacher	peer	learning activity	school rules
resilience	.61**	.40**	.68**	.51**	.40**
autonomy vs. control	.39**	.33**	.26**	.32**	.33**
acceptance vs. rejection	.50**	.31**	.43**	.44**	.46**
parenting attitude	.52**	.37**	.41**	.45**	.46**
relation	.26*	.17*	.18**	.24**	.24**
communication	.28**	.22**	.20**	.26**	.21**
problem solving ability	.23**	.12	.14*	.23**	.26**
sharing values	.28**	.21**	.17*	.29**	.22**
family strength	.29**	.20**	.19**	.28**	.25**

** $p<.01$

주요 세 변인 중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r=.61, p<.01$), 가족건강성은 학교생활적응 및 각 하위요인과 .19~.28 범위의 상관을 보여 관련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동의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가

족건강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아동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에 대한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지수를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787~.928, VIF 지수는 1.000~1.271의 분포를 보여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단계적으로 투입되었을 때, 1단계에서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자아탄력성은 3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양육태도를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9%가 증가되어 46%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3단계에서 가족건강성을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2%가 증가되어 48%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beta = .47, p < .001$)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이며, 그 다음은 어머니의 양육태도($\beta = .29, p < .001$), 가족건강성($\beta = .15, p <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학교생활적응의 각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관계적응의 경우 1단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교사관계적응 변량의 16%를 설명하고 있으며 2단계에서는 교사관계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5% 증가해 21%의 설명

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적응에 대한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beta = .30, p < .001$)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은 어머니의 양육태도($\beta = .25, p < .001$)로 나타났다.

둘째, 교우관계적응의 경우, 1단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교우관계적응 변량에 대해 4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교우관계적응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2% 증가해 49%의 설명력을 보였다. 교우관계적응에 대한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beta = .62, p < .001$)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beta = .15, p < .01$)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활동적응의 경우, 1단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학습활동적응 변량에 대해 2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학습활동적응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7% 증가해 33%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3단계에서는 학습활동적응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2% 증가해 3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활동적응에 대한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beta = .38, p < .001$)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어머니의 양육태도($\beta = .25, p < .001$), 가족건강성($\beta = .16, p <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규칙적응의 경우, 1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학교규칙적응 변량에 대해 2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학습활동적응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9% 증가해 27%의 설명력을 보였다. 3단계에서는 학습활동적응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2% 증가해 29%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칙적응에 대한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beta = .33, p < .001$)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자아탄력성($\beta = .25, p < .001$), 가족건강성($\beta = .13, p <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hildren's resilience,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family strength as predictors of children's school adjustment (N=198)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B	β	t	R ²	ΔR^2	F
1	resilience	teacher	.21	.40	6.06***	.16		36.70***
2	resilience parenting attitude		.16 .10	.30 .25	4.23*** 3.59***	.21	0.5	25.91***
1	resilience	peer	.26	.68	13.07***	.47		170.74***
2	resilience parenting attitude		.24 .05	.62 .15	11.02*** 2.72**	.49	.02	91.84***
1	resilience	learning	.23	.51	8.21***	.26		67.32***
2	resilience parenting attitude		.18 .10	.39 .29	6.01*** 4.54***	.33	.07	47.33***
	resilience	activity	.18	.38	6.04***			
3	parenting attitude family strength		.09 .04	.25 .16	3.84*** 2.70**	.35	.02	34.99***
1	parenting attitude	rules	.15	.46	7.33***	.22		53.73***
2	parenting attitude resilience		.11 .11	.36 .26	5.37*** 3.80***	.27	.05	35.94***
	parenting attitude		.10	.33	4.76***			
3	resilience family strength		.10 .03	.25 .13	3.79*** 2.13*	.29	.02	25.90***
1	resilience	school adjustment	.87	.61	10.68***	.37		114.03***
2	resilience parenting attitude		.68 .36	.47 .33	8.17*** 5.74***	.46	.09	82.74***
	resilience		.67	.47	8.24***			
3	parenting attitude family strength		.32 .10	.29 .15	5.01*** 2.74**	.48	.02	59.50***

* p < .05, ** p < .01, *** p < .001

IV. 논 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 모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세 가지 변인 중 학교생활적응과 가장 상관관이 높은 변인은 자아탄력성이며 가장 낮은 상관관을 보인 변인은 가족건강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간의 상관관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요인 중 특히 교우관계 및 학습활동간의 상

관관이 높았다. 이렇듯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Chae Ho-Sook(2008), Park Sang-Hee(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Chae Ho-Sook(2008)의 결과에 의하면,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간에는 .69의 정적 상관관이 있고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의 하위요인과 자아탄력성간의 상관관은 .71~.84로 높게 나타났다. Park Sang-Hee(2010) 역시 초등학교 6학년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73의 상관관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적응간의 상관관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간의

상관보다는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Cho Myeong-Jin(2012)은 초등학교 5학년생의 학교적응과 부모 양육태도간 상관이 .2~.5의 범위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고, Jung Eun-Ha(2006) 역시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교적응과 .1~.3의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Lee Eai-Ok(2008)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변인간의 유의한 상관이 .2~.3의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52라는 정적 상관은 기존 선행연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가족건강성은 세 가지 변인 중 학교생활적응과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다만 학교생활적응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교생활 만족도 및 학교생활 부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Lee Jeong-Oun과 Lee Kyeong-Hwa(2010)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은 학교생활 만족도와 .75의 높은 정적 상관을 갖는다고 보고한 바 있고,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유의한 역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Lee Hye-Kyong (2009)의 연구를 비추어 볼 때, 가족건강성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두 변인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아동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해본 결과 세 가지 변인은 학교생활 적응 전체 값에 총 48%의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자아탄력성이었으며, 여기에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가족건강성의 유의한 설명력이 추가되었다. 자아탄력성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는 본 연구결과는

Kim Oc-Seon 등(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해당 연구에서 저자들은 초등학생의 전체 학교생활만족도에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이 총 51%의 영향을 미치는데, 자아탄력성이 가족건강성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후 수행된 Kim Oc-Seon 등(2005)의 연구와 유사한 Lee Jeong-Oun과 Lee Kyeong-Hwa(2010)의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 모두 학교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나 가족건강성이 대부분의 설명력을 갖고 여기에 자아탄력성이 일부 설명력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에서 비롯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Lee Jeong-Oun과 Lee Kyeong-Hwa(2010)는 양친이 모두 있는 초등학생과 한 부모 혹은 조부모와 사는 초등학생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양친이 모두 있는 아동의 경우 가족건강성이, 비 양친 가족구조를 갖는 아동의 경우 자아탄력성이 더 주요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Kim Oc-Seon 등(2005)은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영향이 매우 큼을 지적하고 있으나, Lee Jeong-Oun과 Lee Kyeong-Hwa(2010)의 연구를 고려해볼 때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들의 가족구조를 비롯한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에 대한 아동의 자아탄력성, 어머니 양육태도, 가족건강성의 상대적 영향력은 하위요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 적응에는 자아탄력성과 양육태도만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데 양육태도보다는 자아탄력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활동적응과 학교규칙적응에는 자아탄력성, 양육태도, 가족건강성 세 변인이 모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적응의 하

위요인에 대한 세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결과에서 주목되는 두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건강성은 학교생활적응 중 학습활동 적응과 학교규칙 적응에만 유의한 설명력을 가졌다는 점 둘째, 학교적응의 세 가지 하위요인 즉,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습활동적응에 대한 가장 큰 설명 변인은 자아탄력성이었는데 반해 학교규칙적응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가장 큰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첫 번째 결과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미흡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앞서 언급된 바 있는 Kim Oc-Seon 등(2005)과 Lee Jeong-Oun과 Lee Kyeong-Hwa(2010)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 모두 학교생활 만족도를 전체적인 총점으로만 분석하였고 각 하위요인별로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가족건강성이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연구가 축적될 때 본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성과 해석의 정확성이 이루어질 것이라 사료된다. 또 한 가지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은 아동의 자기보고로, 그리고 가족건강성은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작성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건강성만은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한 이유는 가족건강성 도구를 개발한 Eo Eun-Joo와 Yoo Young-Ju(1995)가 가족구성원 중 어머니는 가족건강성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으며 실제 가족건강을 담당하면서 가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가장 대표성 있는 측정치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Hwang Jin-Sook 등(2004)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가족 기능 및 가족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 지각과 해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과 최근 들어 가족건강성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보고측정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해볼 때, 가족건강성도 아동이 응답하도록 했다면 현재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결과인 학교규칙적응에 대한 설명력 중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점 역시 선행연구와 비교, 논의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 우선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투입되는 변인들이 서로 같지 않다. 상대적 영향력이란 말 그대로 고려대상 변인들 내에서의 영향력의 비교이기에 같은 구조를 가진 연구가 존재할 때에 비교 및 그에 따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선행연구들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개념과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Jung Un-Jin(2002)의 연구를 보면,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짐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한 연구(Lee Kang-Ok et al., 2009)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 중 학교규칙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는 온유형 양육태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학교규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자아탄력성도 가족건강성도 아닌 어머니의 양육태도라 함은 어머니의 민주, 자율적, 애정, 수용적 태도가 높게 지각될수록 아동의 학교 규칙에의 적응은 높아짐을 의미하며 이는 부모가 애정적이고 온유한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학교 규칙에의 적응이 높아진다고 한 선행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좋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의 적응 수준이 높아진다. Song Young-Kyoung(2006)은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가 상호작용했을 때 청소년들은 학교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아동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 향

상을 위해 개인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물론 가족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족 전체에 대한 개입이 초등학교 시기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둘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아동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의 상대적 영향력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이다. 따라서 이른 시기부터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함으로써 내적 요인을 강화해주는 것이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제안한다.

Reference

- Baek, Hyun-Jeong(1991).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economic hardship, marital conflict, parenting attachment, and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Block, J. H. & Block, H.(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I: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Byun, Mee-Sun(2005). Elementary students' perception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children's adjustment to school life,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 Chae, Ho-Sook(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school adjustment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Cho, Gye-Yeun(2006).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ego-resiliency,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parenting behavior, family strength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 Cho, Myeong-Jin(2012).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havior of upbringing that children perceive and their sociality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Master's thesis, Kangwon University.
- Choi, Ji-Eun & Shin, Yong-Joo(2003). A study on adolescents' level of school adjustment by their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 and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2), 199~210.
- Choi, Ok-Hee(2006). Effects of various ecological factors on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first-grade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 Choi, Seon-Hee(1999). A study on healthy family factors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Eo, Eun-Joo & Yoo, Young-Ju(199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measuring family strengths,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3(1), 145-156.
- Garnezy, N. (1983). Stressors of childhood. In N. Garnezy and M. Rutter(Ed.),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NY: McGraw-Hill.
- Heck, A. O.(1983). *The education of exceptional children*, NY: McGraw-Hill Book.
- Hwang, Jin-Sook · Lee, Eun-Hee · Na, Young-Joo · Koh, Seon-Ju, & Park, Sook Hee(2004). Cyber behavior of adolescents according to family and school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11), 223~235.
- Jung, Eun-Ha(2006). The effects of teacher's behavior and parents' rearing-attitude perceived by children on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 Jung, Ji-Young & Lim, Jung-Ha(2011). Effects of temperament, family strength and social support on ego-resilience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1), 37~51.
- Jung, Un-Jin(2002).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Jung, Won-Sik(1994). *Educational environment*. Seoul: Gyeo-yuk Publishing Co.
- Kang, Chang-Sil(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Kongju University.

- Kim, Hyeong-Soo & Cho, Woo-Hong(2009). Effect of healthy family relationships and school adaptation on internet addiction in teenagers,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onam University, 23, 61~90.
- Kim, Kyung-Eun & Choi, Eun-Hee(2010).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adolescents' adjustment at school- focused on mediation effect of self-resilienc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9(4), 641~653.
- Kim, Mi-Sun(2011).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 in translation,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 Kim, Oc-Seon, · Oh, Yoon-Ja, & Choi, Myung-Goo (2005). Family strengths, ego-resilience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3), 761~777.
- Kim, Sung-Yeoun(1981). A correlational study among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children's self concepts and school achievement,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Kim, Tae-Lyon et al.(2004).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Hakjisa.
- Kim, Yeon-Jeong(2010). The difference of school life adjustment by the level of self-esteem and family strength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0, 1067~1079.
- Ko, Hye-Jin(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first grader's adjustment in school life,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won, Ji-Eun & Lee, So-Hee(1999). The meta-analysis of juvenile delinquency variabl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4(1), 79~101.
- Lee, Eai-Ok(2008).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parenting attitude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children with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Lee, Hye-Kyong(2009). The relationship of family strength and school maladjustment perceived by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Lee, Hyun-Min(2005). The effects of perception of teacher's behavior and self concep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on the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Lee, Jeong-Oun & Lee, Kyeong-Hwa(2010). Influences of children's perception of , ego-resilience and family strength on school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ir family structur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2(4), 621~632.
- Lee, Kang-Ok · Lee, Mi-Hyun, & Han, Bock-Hwan (2009). The effects of the parents' nursing attitude on personalities and school adaptations, *Korean Business Review*, 2(2), 181~201.
- Lee, Sun-Young(2008). Effects of ego-resilience enhancement program on ego-resilience, school adjus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Lee, Sook(1988). Korean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and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variable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Medinnus, G. R. (1965). Adolescent's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s their par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150~154.
- Min, Byeong-Soo(1991). The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and self-concept on academic achievement,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 Nam, Young-Ja(2009). Impact on juvenile's school adaptation by family strengths: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by self-esteem,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 Olson, D. H. (1996). Clinical assessment and treatment using the circumplex model, In F. W. Kaslow(Ed.), *Handbook in relational diagnosis*, NY: Wiley.
- Olson, D. H., & DeFrain, J. (2003). *Marriages and families*, NY: McGraw-Hill.
- Park, Hyun-Jin(2011).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 perceived by early adolescents on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 Park, Jae-San & Moon, Jae-Woo(2006). The causal

- relationship of adolescent's family conflicts,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as health protec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3(2), 91~107.
- Park, Sang-Hee(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ego resilience, failure tolerance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Rutter, M. (1978). Early source of security and competence. In J. Bruner and A. Garton(Ed.),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hin, Jeong-Hee(2006). The relation between rearing-attitude of parents perceived by child and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 Shin, Yun-Ja(2005). The study of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self-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Song, Young-Kyoung(2006).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Master's thesis, Chungbuk Univeritty.
- Stinnett, N., & DeFrain, J. (1985).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ston: Little Brown.
- Werner, E. E. & Smity, R. S.(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Y: McGraw-Hill.
- Yates, T. M., Egeland, B. & Sroufe, L. A. (2003). Rethinking resilience: A developmental process perspective. In S. S. Luher(Eds.),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childhood adversities* (pp.246~26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
- Yang, Kem-Sil(2010). The effects of home environments and perceived family health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 Yoo, Sung-Kyung, Hong, Se-Hee, & Choi, Bo-Yoon (2004).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ttachment, and existential spirituality between family risks and adaptation,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18(1), 393~408.
- Yoo, Young-Ju(200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family strengths scale for strengthening the family, *Journal of Family relation*, 9(2), 119~151.
-
- 논문접수일 : 2013년 11월 03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4년 01월 03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1월 09일